

의료인문테마스쿨¹호

Intro

- 01. 의료인문테마스쿨 개요
- 02. 보도국은 무엇을 하는가?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사람들에게 남겨진 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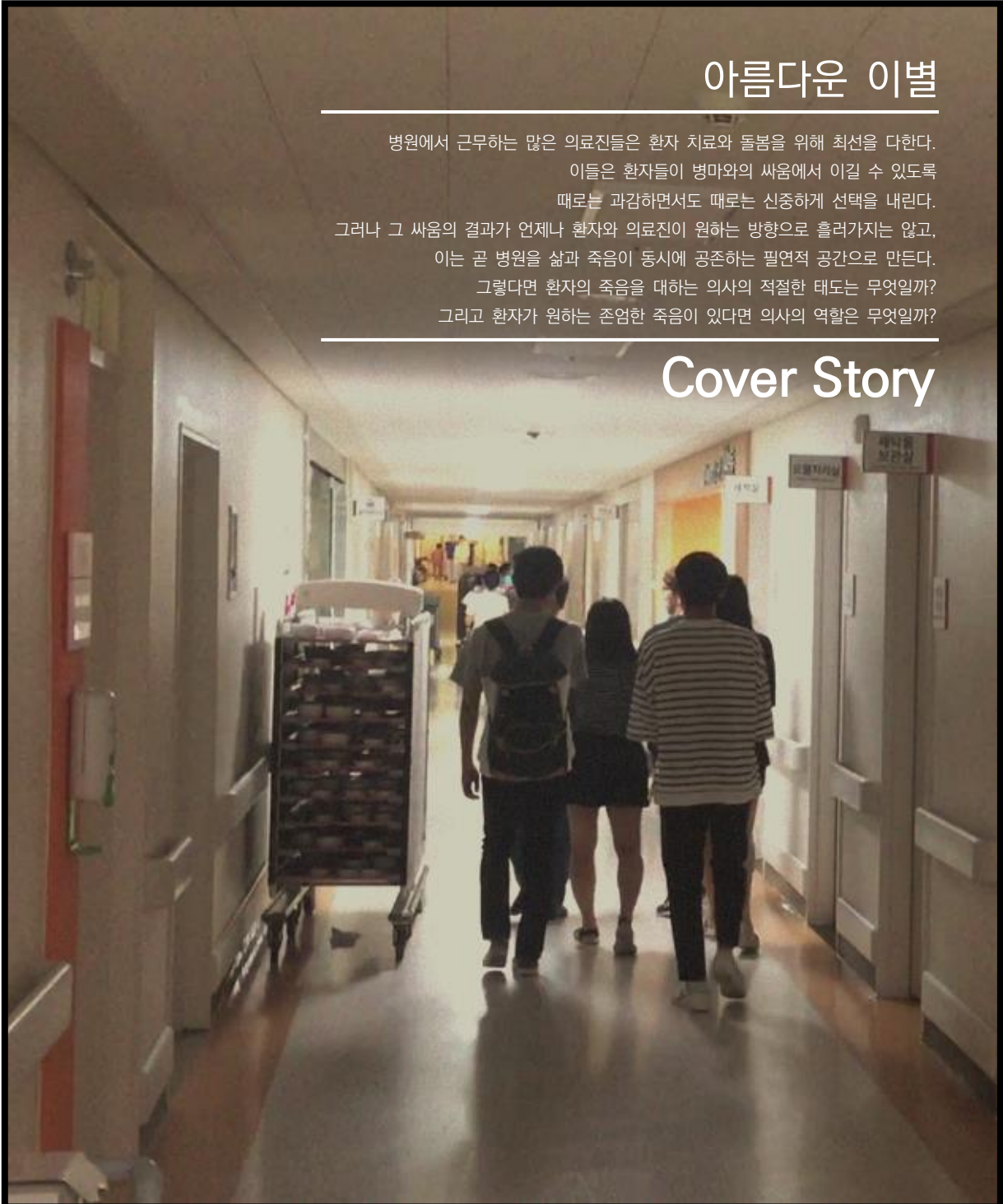
유럽 미술관 여행

유럽여행 계획도 짜고,
인문학적 교양도 쌓고

아름다운 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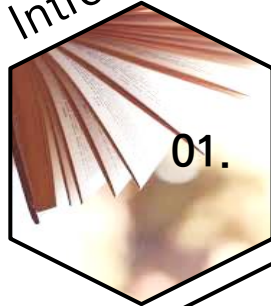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 치료와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들은 환자들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때로는 과감하면서도 때로는 신중하게 선택을 내린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가 언제나 환자와 의료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이는 곧 병원을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필연적 공간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환자의 죽음을 대하는 의사의 적절한 태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존엄한 죽음이 있다면 의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Cover Story



Index

Intro



01.

의료인문
테마스쿨
개요 3p

보도국은
무엇을
하는가? 6p



02.

News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8p



유럽
미술관 여행
10p

아름다운
이별 12p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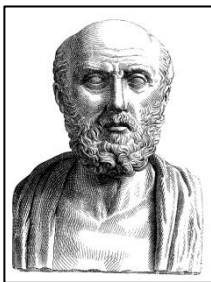
Intro - 01.

의료인문테마스쿨 개요

편집 /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

의료인문테마스쿨은 본과 1학년 2학기 및 본과 2학년 1학기에 개설된 과목으로, 1년동안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통하여 나, 주변사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장차 의사가 될 의학도로서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고,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의사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게 된다.

2017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의료인문테마스쿨에는 총 10가지의 수업주제가 있으며, 본과 1학년 41명의 학생들은 그 중 한 가지 주제를 택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각자 느낀 점을 종합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렇다면 10가지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주제. 히포크라테스를 찾아 그리스로

그리스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그리스 문화와 역사를 알아봄으로써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 수업이다.

담당교수님 / 권오대 교수님
참여학생 / 김대욱, 김병규, 오준석, 오현서

두 번째 주제. 아름다운 이별



중증 질환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돌봐야 할 때 또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돌볼 때 환자와 환자가족, 의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병실 방문, 자율 학습, 토론 등의 방법으로 생각해 본다.

담당교수님 / 김지연 교수님
참여학생 / 배일섭, 백다영, 이영훈, 최은별, 한상철

세 번째 주제. 근대 의학사 기행



우리나라 근대 의학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근대의학과 관계된 유적지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근대의학에 대한 바른 의학적 역사관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사회와 역사, 의학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넓혀간다. 향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를 해결하는데 의과대학생의 의학

사 교육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담당교수님 / 박기영 교수님, 권동락 교수님, 조희경 교수님

참여학생 / 석은재, 이나영, 전해연, 채현주

네 번째 주제. 어쩌다 의대생

입시중심 교육을 통해 성적 순으로 대학 진로를 결정하는 관행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큰 문제점이며, 그 중심에 의과대학이 있다. 소질과 적성에 무관하게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의 흥미를 못 느끼고 정체성과 미래를 찾지 못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통해 희망을 찾는다.



담당교수님 / 박순우 교수님

참여학생 / 김도연, 배지원, 안효원, 조현수, 최석준

다섯 번째 주제. 인공지능 알아보기



미래 인간생활과 의료에 영향을 크게 미칠 인공지능(AI)의 구조, 작동 메커니즘, 적용분야 등을 알아보고 픽션을 통하여 인공지능과 의료를 조망하여 본다.

담당교수님 / 박재복 교수님

참여학생 / 김혜진, 남준호, 이영은, 최우석

여섯 번째 주제. La Traviata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오페라는 왜 아직도 공연되고 사람들에게 의해 열광받는가? 여러 가지 오페라를 직접 감상하면서 구조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나아가 오페라는 왜 종합예술인지, 그리고 인간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토론해본다.

담당교수님 / 박준수 교수님

참여학생 / 김준우, 박기태, 정준범

일곱 번째 주제. 클래식음악과 행복한 나



클래식음악을 통해 음악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과 감동에 대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을 시도함으로써 음악이 주는 치유를 경험한다.

담당교수님 / 성우정 교수님

참여학생 / 김효정, 신가희, 한대현, 황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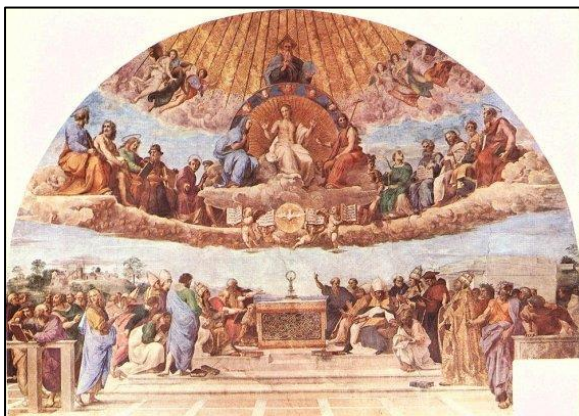
여덟 번째 주제.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우리는 앞에 갇혀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는 것들에 둘러싸여 해 본 일만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둘러보면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고 익숙한 것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낯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의과대학의 엄청난 분량의 공부와 반복되는 시험에 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한 일과 비슷한 선택들로 주위가 채워질 수 밖에 없다.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 상상만 해 봤던 일, 엉뚱하다 생각되는 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아집이나 고집에 사로잡히기 전에 낯선 일들, 처음 해보는 일들에 도전해보자. 우린 청춘이니까.

담당교수님 / 예미경 교수님
 참여학생 / 김지수, 김태균, 이건욱, 이재운

아홉 번째 주제. 유럽 미술관 여행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성당과 미술관들을 만나게 된다. 미술관에서 만나는 그림과 조형물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이야기와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 그림을 통해 화가의 생애와 그 시대를 조명하며 우리의 시대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담당교수님 / 최정운 교수님, 이화정 교수님
 참여학생 / 김지성, 정재익, 진무현, 황보창호

열 번째 주제.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국



의료인문테마스쿨이 교과과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의학교육에서 인문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진행 중인 여러 과정의 취재를 통해 의료인문테마스쿨의 장단점을 평가해본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인문학교육의 방법을 찾고, 주도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담당교수님 / 박윤엽 교수님
 참여학생 / 김대영, 양승현, 이상민, 이찬희

Intro - 02.

보도국은 무엇을 하는가?

작성 / 양승헌

“무엇을 하는 수업일까?”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의료인문테마스쿨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업주제를 고르는 날, 유독 호기심을 자아내는 수업주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국’.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던 다른 수업주제들과는 달리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았다. 게다가 보도를 한다니, 이 수업이 인문학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은 보도국의 담당 교수님인 박윤엽 교수님과 함께한 첫 수업에서 말끔히 해결되었다. 첫 수업 후 나를 포함한 보도국 멤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아, 이거 재밌겠다!’

1. 다른 수업들을 취재하고 뉴스레터를 만든다.

‘보도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진짜 취재를 한다.
보도국 멤버들은 다른 조들의 수업에 직접 찾아가 교수님과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보고, 듣고, 기록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번 발간될 뉴스레터를 제작한다.



2. 수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해본다.

단순히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레터만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진행되는 수업이 인문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학도로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깊은 탐구과정을 바탕으로 의료인문테마스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이다.

3. 마지막 시간에 있을 종합 발표를 기획한다.

의료인문테마스쿨의 마무리까지 장식한다.
모든 수업 과정이 끝난 뒤 각 조별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하는 시간인 종합 발표.
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곳이 바로 보도본부이다.



News Letter 연재순서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유럽 미술관 여행



아름다운 이별



근대 의학사 기행 (2호 예정)



어쩌다 의대생 (2호 예정)

인공지능 알아보기 (2호 예정)



히포크라테스를 찾아
그리스로 (3호 예정)

클래식음악과 행복한 나
(3호 예정)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3호 예정)

Newsletter – 01.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취재 / 이찬희 담당교수님 / 박준수 교수님 참여학생 / 김준우, 박기태, 정준범

좋은 시간은 빨리 가고, 좋은 사람은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로 시간이 빨리 가거나 그 사람이 빨리 떠나거나 한다는 것이 아님을 또한 잘 알지만, 좀 더 그 순간에 머물고 싶고 좀 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리라. 또한 그 후에 남겨진 아쉬움이나 후회, 슬픔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두고두고 후세에 변하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이루어지지 못한 애절한 사랑을 그려낸 인어공주 이야기, 두 가문의 불화로 불행한 결말을 맞은 로미오와 줄리엣 등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으며, 현대까지 사랑받으며 읽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잊혀지지 않게,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받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의료인문테마스쿨 4 조,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조를 찾아가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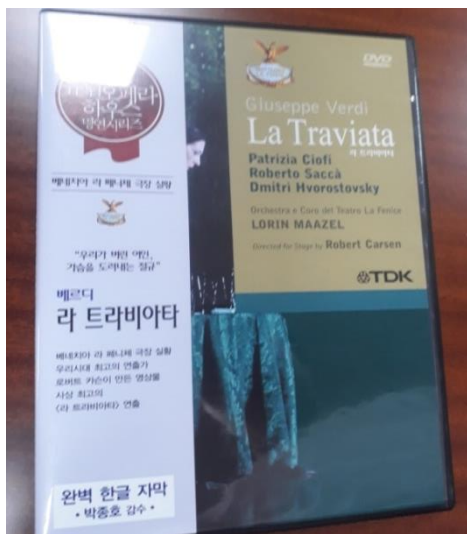


사진 1. 라 트라비아타

8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7층 세미나실, 처음 찾아가본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조는 곧 시청하게 될 ‘라 트라비아타’에 대한 배경지식에 대해 각자 알아보고 있었다. 그 후, 박준수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이 이어졌는데, 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라 트라비아타’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덧붙여, 여배우가 매우 예쁘며 많이 야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해 주셨다.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조의 김준우 학생은 곧 관람할 오페라에 대해 ‘오페라를 본 적이 없으며, 이번이 2 번째 수업이긴 하나 저번에는 오페라에 대한 설명만 듣고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이 생애 처음으로 오페라를 보는 것이 되는데, 오페라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루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 오페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답하였다.

관람에 앞서 교수님의 설명 중 이 ‘라 트라비아타’는 부잣집 도련님과 고급 창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한다는 창부의 이미지와 사랑이라는 단어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이 느껴진 탓이었을까. 또한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로 진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이리라.

드디어 관람이 시작되고,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조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극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극 중간중간 박준수 교수님의 열정이 담긴 보충 설명 역시 빠지지 않았다. 극에 사용된 음악 중 익숙한 곡이 종종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막의 연회 장면에서 흘러나온 축배의

노래(brindisi)로 보통 광고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들어본, 듣자마자 ‘아, 이거!’라고 생각할 만한 유명한 노래였다.

라 트라비아타는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또는 1막, 2막 1장, 2막 2장, 3막), 1막은 고급 창부이자 여주인공인 비올레타와 부잣집 도련님이자 남주인공인 알프레도의 만남과 사랑의 시작을, 2막은 알프레도의 아버지의 개입과 비올레타가 떠남으로 인한 두 사람의 이별을, 3막은 알프레도의 비올레타에 대한 오해와 추태를, 마지막으로 4막은 오해의 해소와 올레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 중 1막에서 비올레타가 알프레도에게 한 대사 한 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자신에게 고백을 하는 알프레도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며, ‘나는 사랑을 모른답니다’라고 대답한 것인데 그녀의 직업이 고급 창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뜻 깊은 대사라고 생각되었다. 그녀를 하룻밤 같이 즐길 여자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았을 그녀가 만나왔던 남자들과, 돈에 따라 움직이고 사랑을 연기했을 그녀의 일생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사이다. 이러한 비올레타의 심경은 2막에서 알프레도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 라 트라비아타를 감상 중인 학생들

극을 보고 난 후, 오페라로 보는 인류에 조는 ‘예상과는 다르게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고, 오페라가 엄청나게 많고 긴 이야기를 다루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답하였다. 또한 취재를 마치며 다음에는 중간 설명 없이 꼭 극만을 볼 것이며, 그 때는 스스로 극에 담긴 의미와 요소들을 음미해보라고 박준수 교수님은 덧붙이셨다. 구식과 고전에 대해 우리는 공통적으로 ‘옛날 것’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둘 다 순전히 오래된 것, 옛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왜 사람들은 굳이 이 두 단어를 따로 만들어 사용했을까? 사전에서 의미하는 고전과 구식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식은 ‘1. 예전의 방식이나 형식. 2. 케케묵어 시대에 뒤떨어짐. 또는 그런 것’, 고전은 ‘1. 옛날의 의식(儀式)이나 법식(法式). 2.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오늘 오페라로 보는 인류에 조 취재 경험과 위의 두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왜 지금 의대생인 우리가 의학과는 (단순하게 보면) 상관 없어 보이는 인문학을 배우고, 이 의료인문테마스쿨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활동하는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현재 배우는 의학은 과학이다. 물론 과학은 실용적이다. 많은 경험과 실험에 의해 검증되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과학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존의 것은 ‘구식’이 된다. 즉, 좀 더 빠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이나 이론이 나온다면 과학에선 기존의 것은 서서히 혹은 순식간에 잊혀지게 되며, 후에 XX의 역사 파트 부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오페라나 인문학의 경우는 다르다. 언제 만들어졌든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있어 충분하다면, 시대가 그 작품이 만들어진 당사가 되었든, 수백 년이 흐른 후가 되었든 온전히 ‘고전’으로 기억되고 두고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이다.

Newsletter – 02.

유럽 미술관 여행

취재 / 이상민 담당교수님 / 최정윤 교수님, 이화정 교수님 참여학생 / 김지성, 정재익, 진무현, 황보창호

“유럽여행 계획도 짜고, 인문학적 교양도 쌓고”

“고흐의 불우한 인생과 그의 예술에 대한 고뇌가 융합되어 탄생한 여러 작품들에서 그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참여학생 황보창호)

의료 인문 테마 스쿨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유럽 미술관 여행 조와 류마티스 내과 최정윤 교수님과 이화정 교수님은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린 반 고흐전을 관람했다. ‘유럽 미술관 여행’은 자신이 가고 싶은 유럽의 미술관에 대해 조사하고 여행계획도 함께 짜는 활동을 한다. 본격적인 활동 전, 전시회를 가 미술작품을 보며 유럽의 미술관들을 간접 체험하는 경험을 했다.

“Musei Vaticani” 9월 4일, 학생들은 바티칸 미술관의 작품들과 여행계획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교수님과 조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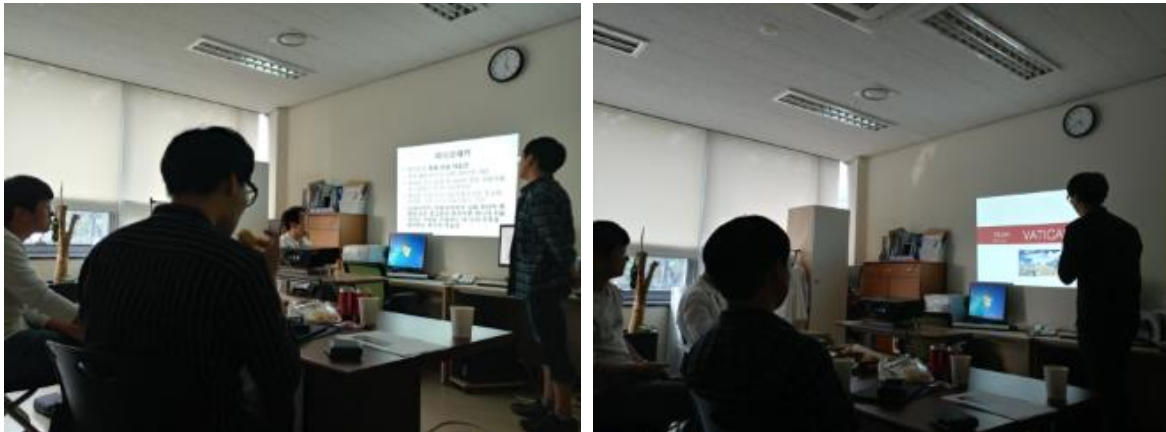


사진 1. 9월 4일, 학생들은 바티칸 미술관의 작품들과 여행계획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교수님과 조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9월 7일 대한항공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로마-다빈치에 도착, 숙소는 로마의 바오로 호텔로 잡았습니다. 호텔은 공항에서 내린 후 LE 선을 타고 Fiumicino Aeroporto에서 Roma Termini 까지 간 뒤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어요. 다음 날 호텔에서 간단히 조식을 먹고 바로 앞에 위치한 바티칸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할 것입니다. 점심으로는 라스카페 햄버거를 먹고 바티칸 내에 위치한 베드로 대성당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Balestari In Prati를 먹을 거예요. 바티칸 박물관의 입장료는 15유로이며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입장할 때 가방까지 모두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안되며 일반 슬리퍼는 착용 불가입니다. 뽕족한 물체나 삼각대도 안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Apollo Belvedere, Torso Belvedere, 성체의 논의가 있는데, Apollo Belvedere(사진 2.)는 고대 그리스 조각가 레오카레스가 조각한 청동상을 로마시대에 복원한 것이며 많은 예술가들에게 완벽한 고전적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Torso Belvedere(사진 3.)은 사지가 잘려나간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이아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하고 복원하라는 교황의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유명해요. 성체의 논의(사진 4.)은 교황 레오 10세의 요구로 라파엘로가 만든 벽화입니다. 저는 이 벽화가 가장 보고싶네요.” (참여학생 김지성)



사진 2. Apollo Belvedere



사진 3. Torso Belvedere



사진 4. 성체의 논의

김지성 학생은 자신이 무슨 비행기를 탈 것인지, 숙소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모두 계획하였다. 당장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여행계획을 세워 가장 인상 깊었다.

철학자 와츠지 테츠로는 기차여행을 다니면서 나라와 교토의 옛 사찰들을 둘러보고 불상에 대한 에세이를 남겼다. 그것이 유명한 고사순례(1919)라는 책이다. 나라와 교토의 특정 고찰들과 불상들을 선정하고 관찰하고 와츠지 자신의 소감을 표현한 행위는, 다시 말해서 여행 목적의 결정은 전적으로 와츠지 개인의 몫이다. 그런 능력은 과학기술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인문학적 교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인문 테마 스쿨 ‘유럽 미술관 여행’은 단순히 유럽의 미술관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평소 인문학적 교양보다 과학기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직접 여행을 계획하게 함으로써, 인문학적 교양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Newsletter – 03.

아름다운 이별

취재 / 김대영 담당교수님 / 김지언 교수님 참여학생 / 배일섭, 백다영, 이영훈, 최은별, 한상철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 치료와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들은 환자들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때로는 과감하면서도 때로는 신중하게 선택을 내린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가 언제나 환자와 의료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이는 곧 병원을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필연적 공간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환자의 죽음을 대하는 의사의 적절한 태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존엄한 죽음이 있다면 의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8 월 29 일, 병원 신경과 회의실에 아름다운 이별 조 5 명의 학생들과 신경과 김지언 교수님이 모였다. 이들은 여기서 case discussion 을 통해 중증신경계 질환 환자 중에서 그 예후가 좋지 않아 discussion 당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몇몇 환자의 case 를 살펴보았다(사진 1.).



사진 1. 신경과 회의실에서 case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5명의 학생들의 모습

그 중 최근 case 에서는 현재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예후가 나빠지는 과정을 확인했다. 이 환자에게는 정확한 질병을 확진한 후 처치할 수 있는 치료법을 모두 시행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여, IRB(생명연구 윤리 위원회), 식약처의 허가를 구해야 사용할 수 있는 신약까지 이용했다. 그러나 약효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환자가 과도한 구토 증세를 보여 hospital acquired pneumonia 에 걸린 후 case 를 살펴보던 당시에는 septic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위의 case 와 같은 혹은 이와는 다른 여러 병적 이유로 인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case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뇌졸중 전문 치료실과 내과계 집중 치료실에 들러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사진 2).



사진 2. 뇌졸중 전문치료실(Stroke Unit)과 내과계 집중치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학생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들을 외우고 습득하는 것에 보낸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암기식 공부법으로는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실제 환자의 병에 대해 고민하고 치료하는 것은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의 답을 빨리 써 내려가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날 학생들이 만난 환자들은 교과서 속에만 존재하는 case 들이 아닌, 삶의 경계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사진 3. 환자들을 만난 후 생각에 잠겨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